

가계부채 급증에 '50년 주담대' 제동

상황능력따라 만기 산정
최장 40년으로 제한
매매 계약했다면 종전 적용
최다 판매는 NH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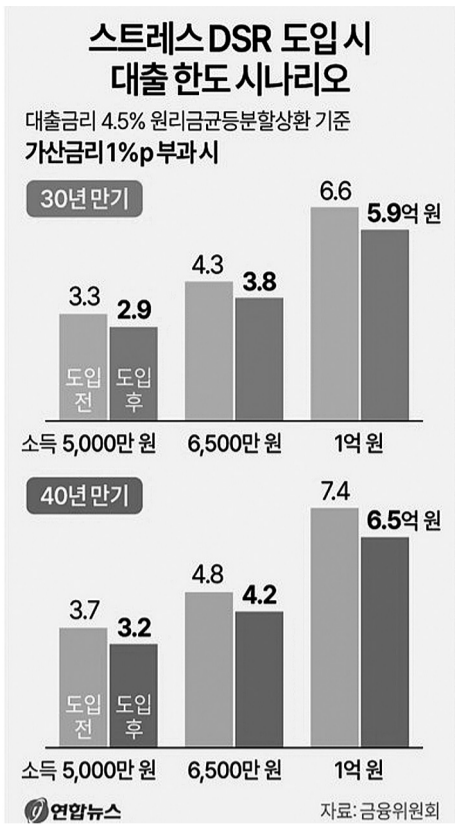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내년 초에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들 은행의 취급액이 전체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집중됐다. 이어 수협은행(1조2000억원), KB국민은행(1조원), IBK기업은행(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2000억원), 경남은행(400억원), 전북은행(100억원), 광주은행(20억) 등 순이었다.

한편 당국의 압박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동참한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 등을 뒀다.

첨단제일풍경채, 국평 아파트 3억대 분양

제일건설, 2429세대 공급
전분주택 오픈... 평수 다양



첨단제일풍경채 조감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첨단제일풍경채'가 15일 전분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첨단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들어선다. A2블록은 지하 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845세대 규모다. A5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 584세대가 공급된다. 59㎡ 소형부터 184㎡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에 진행한다. 당첨자는 A2블록의 경우 10월 11일, A5블록은 10월 10일 각각 발표된다. 계약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돼 지역민들의 관심도 크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A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3억9600만~4억8800만원, 전용 59㎡는 2억8900만~3억5900만원으로 주변 분양 단지에 비해 저렴하다.

단지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제일풍경채 전분주택(광주 서구 삼부리 154)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개관 3일간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라면 등 생필품을 증정, 방문객 대상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등 경품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영무건설, 선운2지구에 554세대 공급

오늘 전분주택 개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선운2지구 에다움 조감도

영무건설은 광주서구 광산구 선운2지구에 들어서는 '선운2지구 에다움'의 전분주택을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5층, 7개동 총 55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 A·B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4베이 혁신형 면 설계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선운2지구 중심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향후 조성될 인프라를 비롯해 기존 선운1지구는 물론, 송정역세권 개발, 하남·수완지구 등 인근 지역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앞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선운초, 선운중 등 초·중·고교·대학까지 인접해 교육 여건도 갖춰진다. 향후 주변에 조성될 근린공원과 황룡강친수공원, 어등산 산책로 등도 이용이 수월하다.

운수IC를 통해 무진대로, 무안-광주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접근이 뛰어나고,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도 가깝다는 점에서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 개발 호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발코니 확장 포함 5억원 미만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운2지구 에다움' 주택전시관은 광주 서구 삼부대로1147번길 7에 마련됐다. 오픈과 동시에 선착순 백화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설업역 상호개방 폐지하고 보호제도 마련해달라"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 급감해 경영에 심각한 위기"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불공정한 생산체제와 일방적인 업역개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간 규제 폐지로 인해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전문건설업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는데, 업역 폐지

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전문건설 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줄었다는 게 고 회장의 설명이다.

고 회장은 "종합과 전문간 내부 경쟁만 부추기는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해 수천억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할 종합건설업체가 2억원에 불과한 전문공사를 싹쓸이해 수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 90%는 1개나 2개 업종만 보유한 전문시공기업인데 어떻게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경기침체 등 위기

속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지자 전문건설업 전담도회를 포함한 전국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3000여명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업 상호시장의 합리적 개방과 전문건설 보호 구간에 따른 등을 촉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성수 회장은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제 개편의 정당화가 절실하다"며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